

김덕현 '1cm'의 눈물

〈광주시청〉

세계육상선수권 男 세단뛰기 예선서 16m72...결선 진출 실패

‘아~ 1cm’
‘한국 세단뛰기 지존’ 광주시청의 김덕현(30)이 세계육상선수권 세단뛰기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1cm가 부족해서다.
김덕현은 26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72를 기록, 14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 세단뛰기는 예선에서 17m를 넘어서는 선수는 자동으로 결선에 진출하고, 17m를 넘지 못한 선수 중 긴 거리를 뛴 선수를 추려 총 12명의 선수를 뽑는다.
1, 2차 시기 모두 16m57을 뛴 김덕현은 예선 마지막 기회인 3차 시기에서 16m72를 뛰었다. 2009년 6월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7m10)은 물론 올 시즌 7월 기록한 시즌 최고 기록(7m)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위로 결선에 진출한 리반 샌즈(바하마)의 기록이 16m73이었다. 김덕현은 1cm

가 부족해 결선 진출에 실패한 것이다.
2007년 오사카 대회에서 9위를 차지한 김덕현은 8년 만의 세계육상선수권 결선 진출을 노렸지만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
김덕현은 “(3차 시기를 마치고) 느낌이 괜찮아서 ‘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기록은 좋지 않았다. 결선에서 뛰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며 “예선 전에는 3번의 기회만 주니 긴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1cm 차로 결선에 나서지 못해 아쉬움은 더 컸다. 김덕현은 “오늘 경기 전에 몸 상태가 괜찮았다. ‘할만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1cm 차로 떨어졌다. 운도 따르지 않으니...”라고 아쉬워하며 “2차 시기가 아쉽다. 첫발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무너져서...”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김덕현은 한국 남자 멀리뛰기와 세단뛰기를 홀로 이끈 외로운 스타다.

김덕현 2007년 오사카 대회에서 16m78을 뛰어 한국 남자 세단뛰기 사상 최초로 결선 진출에 성공한 김덕현은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는 16m58를 기록해 예선 탈락했다.
김덕현은 2011년 대구에서는 예선 3차례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2011년 대구 대회에서 멀리뛰기 결승에 오르며 한국 도약 종목의 자존심을 세웠다. 그러나 이때 발목 인대 3개가 끊어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결승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김덕현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멀리뛰기 은, 세단뛰기 동메달을 따내며 부활에 성공했다.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아쉽게 결선행 티켓을 놓쳤지만, 김덕현에게는 내년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김덕현은 2016년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가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새처럼 날았지만... 한국의 김덕현(광주시청)이 26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거리도 '케냐 강세' 세계 육상지도 다시 그린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대 이벤트는 남자 400m 허들에서 나왔다.
니콜라스 뱃(23·케냐)은 25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400m 허들 결승에서 47초79를 기록,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경기 전까지 누구도 우승 후보로 꼽지 않았던 뱃은 케냐 신기록과 올 시즌 국제육상연맹(IAAF) 400m 허들 기록을 모두 바꿔놨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 기록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이번 대회에서 '종목 시즌 최고 기록'이 나온 건 400m 허들이 처음이다.
우승후보로 꼽혔던 2013년 모스크바 대회 은메달리스트 마이클 킬슬리(미국)는 8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400m 허들 시즌 1~5위 기록은 모두 미국 선수가 보유했다. 데니스 쿠드랴프체프(러시아)

뱃, 400m 허들 '깜짝우승'
'육상 강국' 미·러시아 제쳐
정도가 미국의 대항마로 꼽혔다.
그러나 뱃이 우승하고, 쿠드랴프체프가 은메달을 따냈다. 이 종목 시즌 1, 2위 기록 달성자도 뱃과 쿠드랴프체프의 기록으로 바뀌었다. 러시아는 400m 허들에서 꾸준히 메달을 따왔다.
하지만 케냐의 400m 허들 금메달 획득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도 놀란 '사건'이다.
IAAF는 26일 "케냐가 800m 미만을 달리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케냐는 누구나 인정하는 마라톤, 중장거리 강국이다. 세계선수권 메달도 마라톤, 1만m, 5000m, 3000m 장애물에 편중

됐다. 2000년대에 돌입하면서 중거리 1500m와 800m에서도 케냐 선수들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타고난 체력에 힘이 붙으면서 케냐가 지배할 수 있는 육상 경기의 수가 늘어났다. 이전 400m 허들도 '케냐가 우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된다.
케냐에서 육상은 '입신양명'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중장거리에는 좋은 선수가 몰리다 보니 국제무대에 알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선수가 늘어났다. 10대 중후반의 선수 중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선수들이 종목을 중거리 혹은 단거리로 종목을 바꾸고 있다. 미국과 자메이카가 양분하는 단거리에도 케냐의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뱃의 400m 허들 우승은 예고편일 수도 있다. 케냐는 25일까지 이번 대회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원한 매치기 한국 남자 유도 73kg급의 기대주 안창림(21·웅인대)이 26일(한국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독일의 이고르 앤드레코를 시원하게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 단식 3회전에

윈스턴세일럼 오픈

정현(71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 테니스(ATP) 투어 윈스턴세일럼 오픈(총상금 61만6210 달러) 단식 3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

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9번 시드의 브누아 페어(41위·프랑스)를 2-0(6-1 6-4)으로 물리쳤다.
이어서 정현은 투어 대회 단식 본선에서 개인 통산 여섯 번째 승리를 따냈다. 정현이 한 대회에서 단식 본선 2연승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 마이애미오픈과 4월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 6월 애저온

프과 이달 초 시티오픈에서는 모두 단식 2회전 벽을 넘지 못했다. 정현이 이날 꺾은 페어는 2013년 세계 랭킹 24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정현이 세계 랭킹 40위대 선수를 물리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현의 다음 상대는 루엔선(대만)이다. 루엔선을 물리칠 경우 정현은 투어 대회 단식에서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된다.
/연합뉴스

석현준 이어 이청용도 골맛...미소짓는 슈틸리케

시즌 초반 부진이 우려됐던 슈틸리케호 유럽파 태극전사들이 마치 대표팀 명단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경쾌한 골 소식을 잇달아 전해오면서 내달 예정된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5년 만에 대표팀에 승선하는 석현준(비토리아FC)을 필두로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이 연이어 득점 소식을 알린 가운데 허벅지를 다친 기성용(스완지 시티)까지 부상을 털어내고 그라운드로 돌아오면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미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청용은 26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셀허스트파크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3부리그)와의 2015-2016 캐피탈원컴 2라운드에서 팀이 2-1로 앞서던 연장전 반 7분 췌기골을 꽂으면서 팀의 4-1 대승에 힘을 보탤다.
이날 선발로 나서 연장전까지 '120분 혈투'를 모두 소화한 이청용은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 이후 데뷔골까지 맛보면서 최고의 몸상태를 과시했다. 비록 상

기성용도 허벅지 부상 털고 캐피탈원컴 2라운드 선발 출전

특히 석현준은 정규리그 1라운드에서 1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2골1도움)를 달성하며 물오른 발끝 감각을 과시했다.
말 그대로 '슈틸리케 감독이 찍으면 골이 터진다'라는 속설이 그대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더불어 대표팀의 '중원 핵심' 기성용(스완지시티) 역시 허벅지 부상을 털어낸 것도 슈틸리케 감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성용은 이날 영국 리버티스타디움에서 열린 캐피탈원컴 2라운드에서 요크시티(4부리그)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81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9일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선발로 나섰다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을 다친 기성용은 한동안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정규리그에서 2경기 연속 결장한 기성용은 캐피탈원컴에 선발로 복귀해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증명했다.
/연합뉴스

대가 3부리그 팀이었지만 이청용의 골소식이 더 반가운 것은 '부상 약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다.
불탄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이청용은 2011-2012 시즌 개막 직전 정강이뼈를 골절 당하면서 사실상 한 시즌을 쉬는 통에 슬럼프에 빠졌다.
이청용은 힘겹게 재활에 성공했지만 팀이 하위리그로 강등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지난 2월 크리스탈 팰리스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복귀했다.
이에 앞서 슈틸리케 감독의 호출을 받아 5년 만에 태극마크를 따낸 석현준은 지난 25일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2라운드에서 아카데미카 드 코임브라를 상대로 혼자서 2골을 쏟아내는 맹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